

광주시, 미래차 소부장 특화단지 조성 2년차 자율주행인증 구축·연구개발·인력양성 '결실'

광주시가 '미래차 소부장(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 조성사업 2차년도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며 자율주행 인증 기반 구축, 핵심기술 연구개발(R&D), 인력양성 등 3개 분야에서 눈에 띄는 성과를 거뒀다.

광주시는 이를 바탕으로 자율주행 부품기술의 국산화와 지역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미래 모빌리티 선도도시 도약의 청사진을 제시했다.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광주미래차모빌리티진흥원과 함께 17~18일 전북 변산 소노벨에서 '2025년 미래차 소부장 특화단지 통합 성과보고회'를 개최하고, 참여 기관·기업 간 협력체계를 강화했다.

보고회에는 광주시, LG이노베이션, 한국알프스㈜, DH오토리드, ㈜에스오에스랩, KT, ㈜에이티, 한국광기술원, 한국자동차연구원 광주본부, 한국전자기술연구원 광주지역본부 등 20개 참여 기관·기업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보고회 첫날인 17일에는 소부장 특화단지 사업 2차년도 주요 추진성과가 발표됐다.

특히 '자율주행 안전 성능평가 인증지원센터' 건립 상황이 공유되며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지난 9월30일 착공한 인증지원센터는 내년 12월 준공 예정이다. 광주시는 2024년 5중, 2025년 6중을 구축한데 이어 내년까지 총 21종의 자율주행 검증 장비를 구축해 시험·평가·인증을 위한 기반시설(인프라)로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주요 참여기업들의 핵심 기술 연구개발(R&D) 성과도 두드러졌다.

▲에스오에스랩은 윈드쉴드 오염 및 악천후에도 안정적인 인지가 가능한 엣지 임베디드 모듈을 개발했으며 ▲DH오토리드는 노면 반력모사 액추에이터와 안전성을 위한 이중화 전원시스템 등 핵심 구성요소를 개발했다. ▲㈜에이티는 차량과 교통 인프라 간 정보를 교환하는 로드사이드 유닛(RSU)의 1차 시제품을 제작했다.

광주산학융합원은 지역 기업의 인력 수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자율주행차 부품기업 재직자를 대상으로 특화교육과 R&D 전문교육 프로그램 운영했다. 이를

20개 참여 기관·기업 성과보고회... 기술교류·공동연구 등 협력 다짐
자율주행성능평가 인증지원센터 착공... 장비 등 인프라 구축 가속화
참여기업 핵심기술 개발 성과 공유... 재직자 200명 R&D 전문 교육
미래차 산업 환경변화 대응 세미나... AI+모빌리티 신도시 조성 공감



동해 올해말까지 총 200여명의 수료생을 배출할 예정이며, 산학연 연계 현장형 심화교육 등 기업 맞춤형 교육지원을 지속 확대할 방침이다.

둘째날인 18일에는 한국광기술원 주관으로 자율주행 지능형 통신 및 전력 기술 세미나가 열렸다. 세미나에서는 미래차산업 환경 변화에 대응한 기술교류와 공동연구 필요성에 공감하며 협력 의지를 다졌다.

이동현 미래차산업과장은 "미래차 소부장 특화단지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며 "자율주행 인증지원센터 구축, 기술개발, 인력양성 등 각 사업의 내실을 다지고 국정과제로 반영된 AI모빌리티 국가 시범도시 조성사업과 연계해 지역기업들

이 미래차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시는 지난 2023년 7월 산업부 공모에서 자율주행 부품 분야 '소부장 특화단지'로 선정됐다. 광주시는 오는 2028년까지 진곡산단(부품생산), 빛그린국가산단(인증·완성차), 미래차국가산단(실증)을 연계한 약 708만㎡(220만평) 규모 미래차산업 삼각벨트를 조성하고, 통합제어·인공지능·제어·통신 등 핵심기술 국산화를 앞당길 계획이다.

광주시는 또 2024년부터 5년 동안 약 657억원을 투입해 자율주행 기술 연구개발(R&D)과 성능평가 기반시설(인프라) 구축, 인력양성을 지속 추진하고 있다. /신영길 기자

전남도, 29일 순천시 경제 타운홀미팅 '정책대동회 바란'

누구나 자유롭게 참여 가능... 21일까지 제안서 접수해 토론

전라남도는 29일 동부지역본부에서 경제 타운홀 미팅인 '전남 정책대동회 바란(2차)'을 개최키로 하고 21일까지 정책 제안서를 받는다고 밝혔다.

지난 9월 전남도청에서 개최했던 1차 행사처럼, 강위원 경제부지사와 정책 제안자가 직접 만나 정책 제안을 청취하고 의견을 나누는 열린 토론장으로 마련된다.

전남 정책대동회 바란은 보편적, 공개적, 무제한적 소통을 하기 위해 남녀노소, 거주지역, 주제 범위 제한 없이 내·외빈 축사와 격려사, 마이크 돌림이 없는 '3무'를 원칙으로 혁신적 창의와 비판적 지혜를 모으는 자리다.

지난 1차에는 200여 명이 참석해 5시간 동안 제안과 경청이 이어졌으며, 52명이 87건을 제안하는 등 공론의 장

으로 진행됐다.

산업이나 일자리 등 경제 현안뿐 아니라 교육, 농업, 수산 등 다양한 제안에 대해 전남도는 부서별로 심도 있는 검토를 거쳐 행사 개최 한 달 내 제안자에게 답변했으며, 추가 질의에 대한 답변도 검토 중이다.

전남도는 이번 행사에서도 다양한 분야의 제안을 경청하고, 신속하게 제안자에게 답변할 계획이다. 원활한 진행과 심도 있는 답변을 위해 사전 제안서도 받고 있다. 또한 중앙부처 건의가 필요하거나, 도정 정책에 반영이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리해 적극 협의할 예정이다.

'바란' 참여, 제안서 제출은 전남도 기반산업과(061-286-3820)로 문의하면 된다. /임채일 기자



광주시, '2026년 마을기업 육성' 참여기업 모집

12월 5일까지 4개 분야 접수... 최대 5000만원 사업비 지원
지역문제 해결·일자리 창출 기업 육성... 내년 2월 최종 지정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2026년 마을기업 육성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12월5일까지 공개 모집한다. 마을기업은 지역주민의 자발적 참여와 협력을 통해 지역자원을 활용한 공동체 사업을 운영하고, 지역 문제 해결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사회경제연대 조직이다.

이번 공모는 ▲예비 ▲신규(1회차) ▲재지정(2회차) ▲고도화(3회차) 마을기업 등 총 4개 분야로 진행된다. 광주시와 행정안전부는 현장 실사와 심사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2026년 2월 중 마을기업을 최종 지정할 예정이다.

신청 자격은 광주시에 소재한 기업 중 마을기업의 4대 요건인 ▲공동체성 ▲공공성 ▲기업성 ▲지역성을 모두 충족하고, 지원기관에서 운영하는 마을기업 필수교육을 이수한 기업이다.

신청된 마을기업은 분야별 기준에 따라 최대 50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받으며 전

정안전부는 현장 실사와 심사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2026년 2월 중 마을기업을 최종 지정할 예정이다.

신청 자격은 광주시에 소재한 기업 중 마을기업의 4대 요건인 ▲공동체성 ▲공공성 ▲기업성 ▲지역성을 모두 충족하고, 지원기관에서 운영하는 마을기업 필수교육을 이수한 기업이다.

신청된 마을기업은 분야별 기준에 따라 최대 50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받으며 전

문교육, 경영·노무 상담(컨설팅), 판로지원 행사 등 다양한 지원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광주시와 광주사회적경제지원센터 누리집 공고문을 확인하거나 기업 소재지 관할 자치구 마을기업 담당 부서에 문의하면 된다.

광주사회적경제지원센터는 20일 센터에서 마을기업 모집 관련 설명회를 열어 기업들의 참여를 지원할 예정이다.

이제두 노동일자리정책관은 "마을기업은 지역 주민이 주체가 돼 지역문제를 해결하고 경제적 자립을 도모하는 중요한 조직"이라며 "연대와 협력을 바탕으로 성장할 기업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신종팔 기자

워킹맘 역대 최대지만... 어린 자녀 둔 여성 32% 직장 떠나

경력단절 10년 이상이 42.1%... 직장 복귀 장벽 여전

미성년 자녀와 함께 사는 기혼여성 5명 중 1명이 경력단절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6세 이하 어린 자녀를 둔 여성은 3명 중 1명꼴로 직장을 다니다 관났다. 국가데이터처는 20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5년 상반기 지역별고용조사 기혼여성의 고용현황'을 발표했다.

올해 4월 기준 15~54세 기혼 여성 740만3000명 가운데 경력단절여성(110만5000명)이다. 결혼, 임신·출산, 육아, 자녀교육, 가족돌봄 등을 이유로 직장을 그만둔 여성이 이에 해당한다.

기혼여성의 고용이 확대되면서 경력단절 비중은 감소세다. 경력단절 규모는 1

년 전보다 11만명 줄었고, 비중도 14.9%로 1.0%포인트(p) 낮아졌다. 이는 2014년 관련 통계 집계 이후 가장 낮은 수치다.

18세 미만 미성년 자녀와 함께 사는 기혼 여성의 경력단절 규모는 88만5000명으로, 전년보다 8만5000명 감소했다. 비중은 21.3%로, 미성년 자녀를 둔 기혼여성 5명 중 1명 이상은 경력단절을 겪었다는 뜻이다.

미성년 자녀와 함께 사는 여성의 주당 평균 취업시간은 35.3시간으로 지난해와 동일했다. 산업별로는 보건업·사회복지서비스업이 17.8%로 가장 비중이 컸고, 그 뒤로 교육서비스업(15.6%), 도매 및 소매업(12.5%) 등 순으로 나타났다.

또 자녀수가 많을수록 경력단절 비율이 높았다. 자녀수가 3명 이상인 경우 23.9%가 일을 그만뒀고, 2명은 22.3%, 1명은 20.2% 순으로 집계됐다.

자녀 연령이 낮을수록 경력단절을 겪는 비율은 치솟았다.

6세 이하 자녀를 둔 여성 145만6000명 중 46만1000명(31.6%)이 경력단절을 경험한 것으로 조사됐다. 3명 중 1명꼴이다. 자녀가 7~12세인 경우에는 18.7%, 13~17세인 경우 11.8%였다.

기혼여성의 고용률은 자녀의 나이가 많을수록 높아졌다. 미성년자 자녀와 함께 사는 기혼여성의 고용률은 64.3%로 전년보다 1.9%p 상승했다. 기혼여성의 평균 고용률은 전년보다 1.3%p 오른 67.3%이다. 각각 모두 2016년 관련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높은 수준이다. /뉴시스

광전매일신문 기사제보·광고문의
TEL 062-525-9775 FAX (062) 528-4566



자연속의 가족미를 곡성에서